



정 경 희

(언론인/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 곰발바닥과 빵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요리하면 ‘곰발바닥(熊掌)’ 요리를 최고로 쳐왔다. 맹자(孟子)의 비유가 있다. “생선도 먹고 싶고 곰 발바닥도 먹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먹을 수 없다면 생선을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게 마련이다.” 같은 이치로 “사는것보다는 의로움을 앞세우라” 했다.

곰 발바닥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폭군 영공(靈公)때 일이다. 궁중 요리사가 곰 발바닥 요리를 올렸다. 영공은 곰 발바닥이 제대로 삶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요리사를 죽였다. 그나마 요리사의 시체를 삼태기에 담아 그 아내가 이고 가게 했다. 신하인 사계(士季)가 조돈(趙盾)과 의논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을 나무랐다. 결국 영공은 “지나친 것을 앞으로 고치겠다.”고 했다. 기원전 60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천6백1년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입맛만큼 나라마다 다른 것도 드물다. 대표적인 것이 차(茶)다.

우리 나라에서도 고려때에는 차를 마시는 게 성행했다. 나라에서 올리는 팔관회에는 궁중에서 차를 올리는 ‘진다(進茶)’ 의식을 행하기도 했다. 중신 최승로(崔承老)가 죽었을 때 성종(成宗) 임금이 내린 부의 물품 가운데에는 차가 들어 있었다.

조선왕조때도 초기까지는 차를 마셨다. 사헌부(司憲府)에서 하는 일이 없이, 하루 한번 모여서 “차를 마시고는 헤어졌다.” 한다.

그러나 세종임금때에는 벌써 차가 사라져 가고 있었던 것 같다. 세종임금의 말이라고 했다. “중국에서는 어찌 차를 좋아 하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대궐에서도 차를 쓰지 않으니 기호가 그만큼 다른 것이리라.”

금남 최부(錦南 崔溥)가 풍랑을 만나 중국까지 표류한 것은 5백6년전의 일이었다. 최부일행을 호송하던 진훤(陳萱)이 물었다. “귀국에서도 손님을 접대하는데 차를 씀니까?”이에 최부가 대답했다. “술은 내지만 차는 안 내요.” 이웃 사촌이러지만, 중국과 우리 나라와는 그만큼 달랐다.

하지만 그것도 또 달라지고 있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또 그 이상으로 커피가 냉수만큼 흔해졌다. 커피가 이땅에 상륙한게 1889년이었던니까 꼭 1백5년전 일이었다. 그러니까 1백년남짓에 커피가 우리의 입맛을 완전히 바꿔 놓은 셈이다. 독일의 바호가 ‘커피칸타타’를 작곡한 게 2백62년전 일이었으니 엄청나게 빠른 변화다.

“아! 난 언제나 소원을 이루어나/너 나쁜 애야, 돼먹지 않은 계집애야/커피를 집어치워라!” “아버지 정말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마세요!/하루 세번씩/커피잔 들지 않으면 전 괴로와/말라빠진 구운 양고기처럼 돼요.”-독일의 아버지와 딸이 주고 받았던 입씨름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옛날 얘기다.

그 커피는 쌀밥을 먹는 이땅에 빵과 함께 들어온 것이다. 가루컷이라면 국수가 주요, 만두나 수제비를 빚어 먹는 전통이 전부였다. 그것도 이제 도시에서는 적어도 아침 한끼를 빵으로 치르는게 흔할만큼 됐다. 다만 빵은 밥과 달리 ‘사다 먹는 식품’이라는 차이가 있다.

곰 발바닥을 잘못 삶은 요리사는 죽임을 당해야 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그만큼 정성이 필요하다. 다 같은 쌀밥도 집집마다 맛이 다른 것처럼, 빵도 만든 사람과 상표에 따라 맛이 다른 예술작품이 돼야 한다. 이땅에서 빵을 구운지도 1백년이 넘었다면 천하에 자랑할만한 작품이 나올때도 되지않았을까.